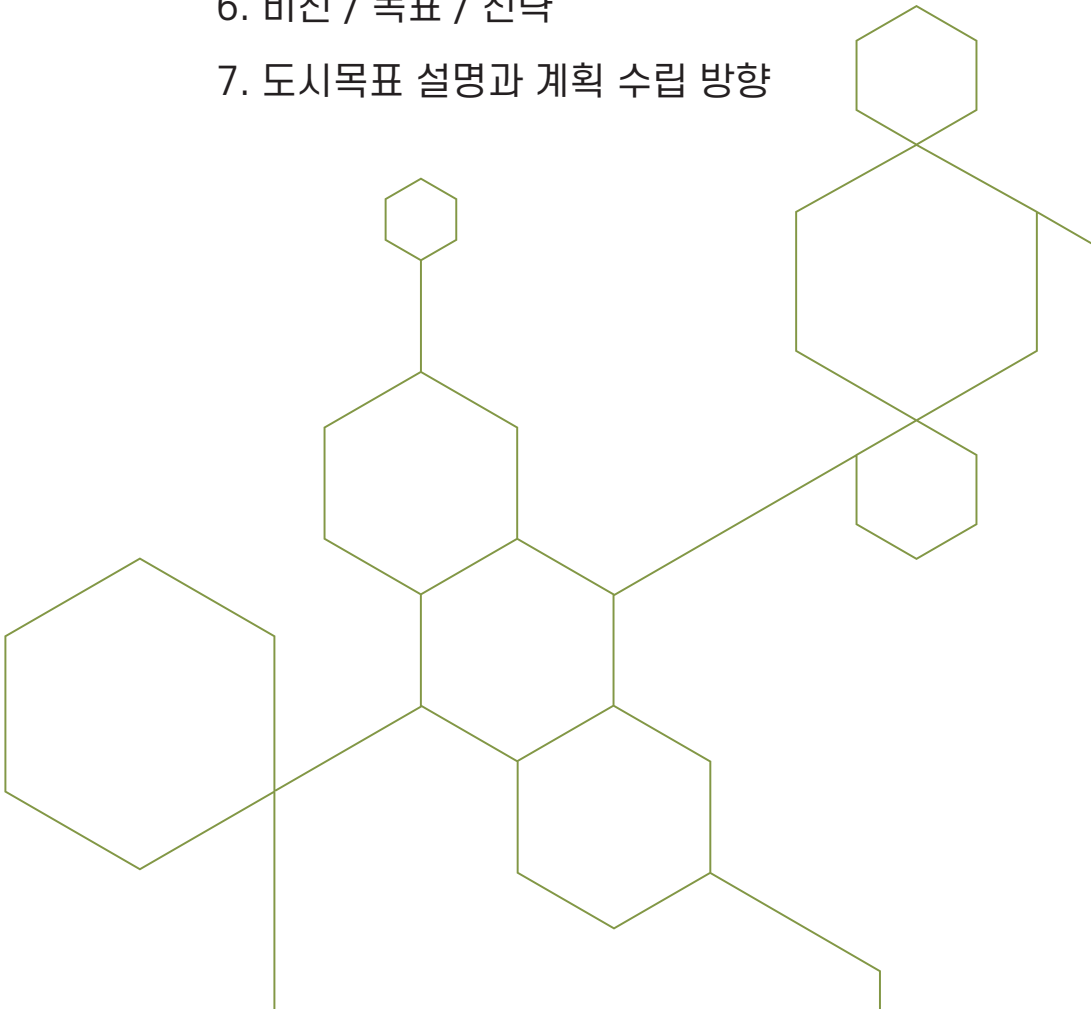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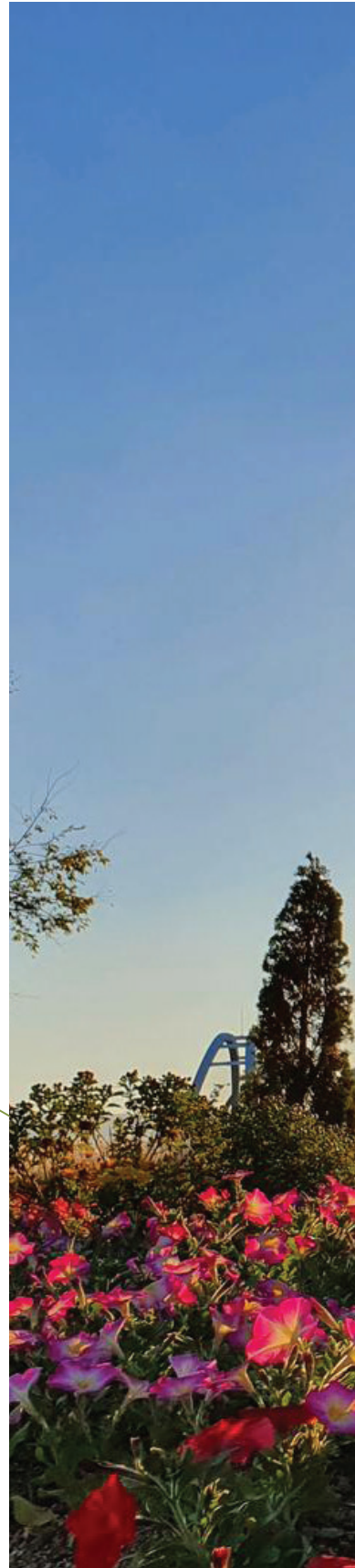


IV

비전 / 목표 / 전략

1. 비전 및 목표 도출 과정
2. 도시행정 분야별 현황
3. SWOT 분석
4. 주요 대응 전략
5. 주요 대응 전략에 따른 목표 도출
6. 비전 / 목표 / 전략
7. 도시목표 설명과 계획 수립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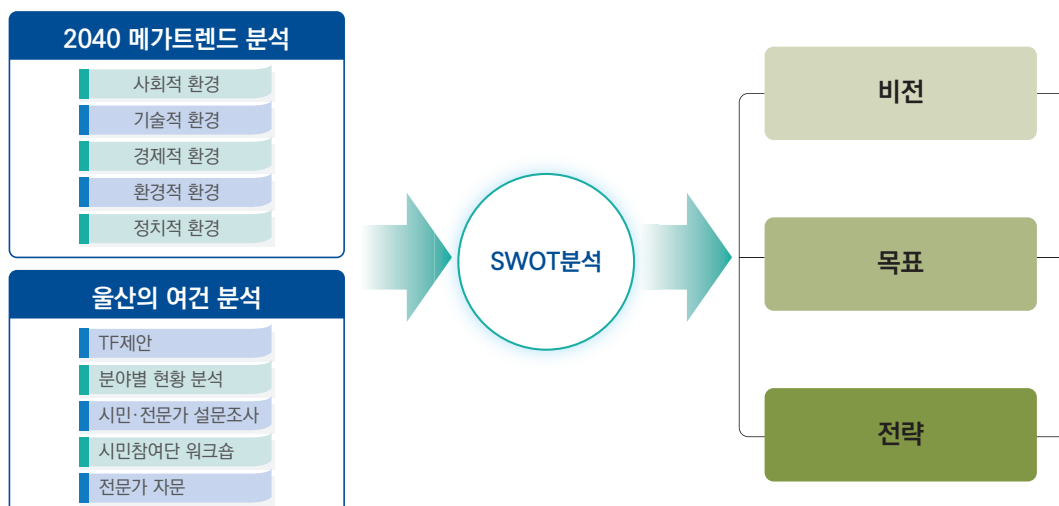




1. 비전 및 목표 도출 과정

- 본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계획의 흐름도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2040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울산의 도시여건 분석, 울산 2040 플랜 기본 구상, 분야별 계획 수립, 공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음
 - － 먼저 2040 미래 트렌드 분석은 총30편(국내 13, 국외 17) 보고서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15개의 메가 트렌드를 도출함
 - 1단계는 국내외 보고서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한 개의 파일로 만들고, 키워드 분석한 후, 키워드를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별로 분류
 - 2단계는 1단계 결과를 유사·공통성으로 그룹핑하고,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주요 메가트렌드 선정
 - － 둘째, 메가트렌드, TF제안, 거시환경과 울산의 도시여건, 전문가 및 시민 제안 내용을 토대로 전략 마련을 위한 SWOT 분석을 진행함
 -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의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 도출
 - 울산의 도시여건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도출
 - － 셋째, 울산 2040 플랜의 기본 구상은 SWOT 결과를 토대로 비전, 목표, 전략을 도출함
 - － 넷째,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구상
- 울산 2040 플랜의 비전 / 목표 /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2040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분야별 현황 분석을 문헌 중심으로 실시함
- 울산 2040 플랜 내용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워크숍 및 시민·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최종 결과물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후 반영

그림 26. 비전 / 목표 / 전략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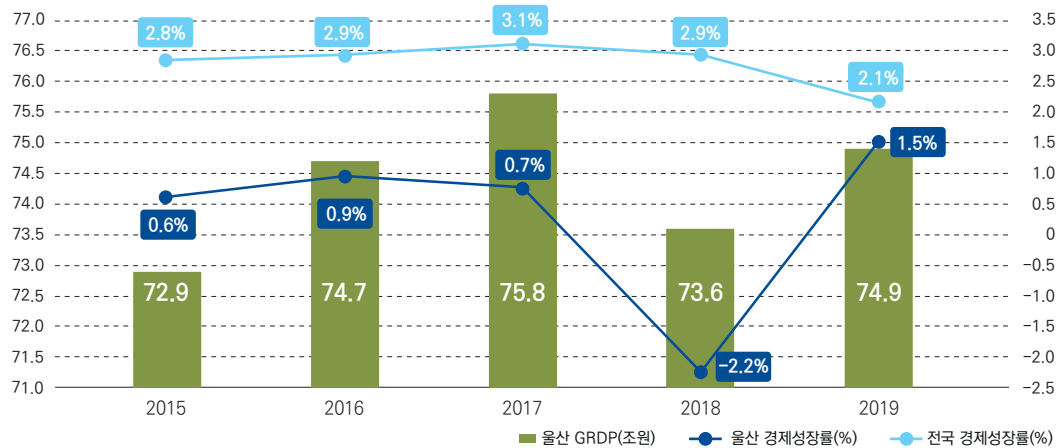
2. 도시행정 분야별 현황

경제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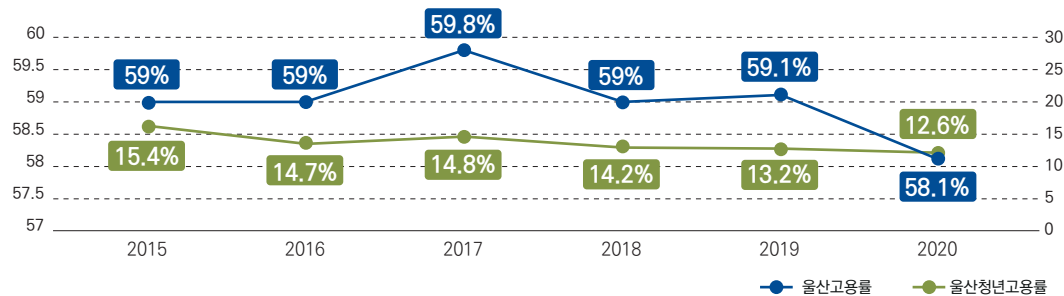
- 2018년 울산의 경제성장률은 -2.2%로 전국 2.9% 보다 5.1% 낮음
- 울산의 고용률은 2017년 59.8%를 정점으로 2020년 58.1%까지 떨어짐
- 2018년 울산의 산업구조는 크게 제조업 60.8%, 서비스업 33.4%로 구성됨
- 제조업 부가가치액 대비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018년 대비 2019년 약 34% 증가했으나, 조선 및 석유화학산업은 각각 약 -12.8%, -2.9% 감소

그림 27. 경제산업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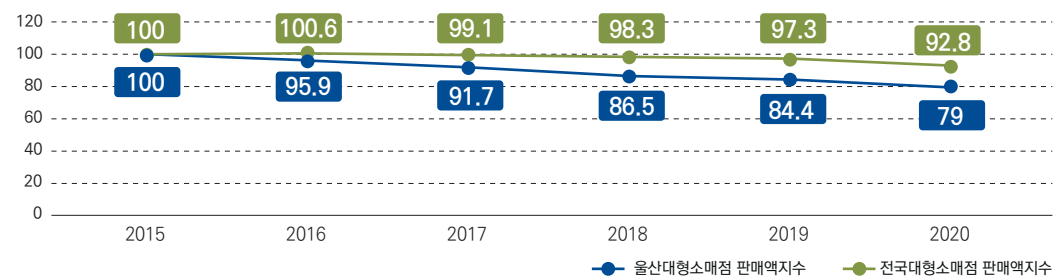
GRDP와 경제성장률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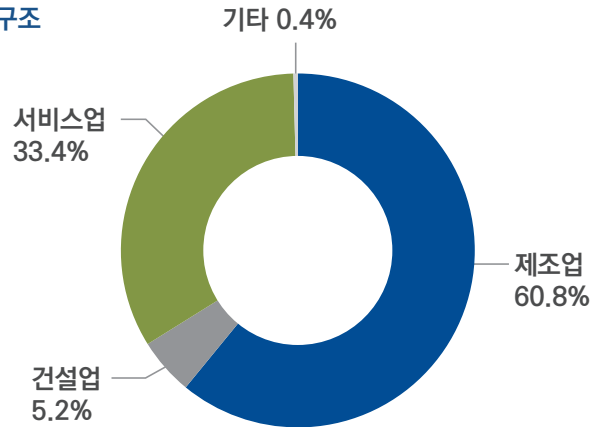
소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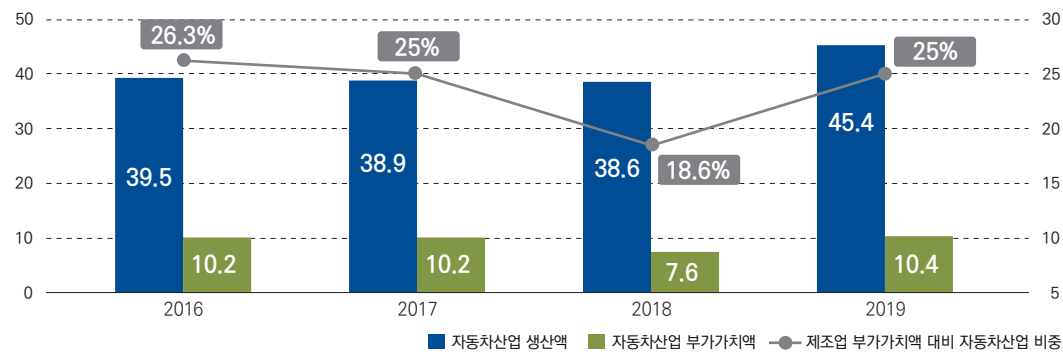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5~2020년

그림 27. 경제산업 주요 현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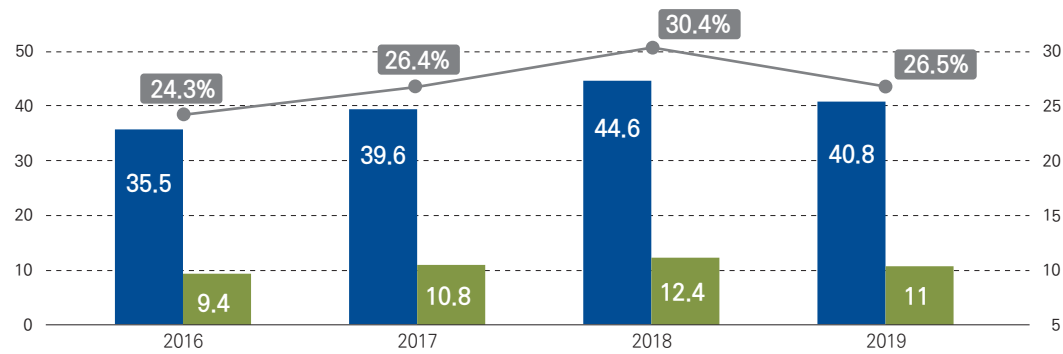
● 2018년 울산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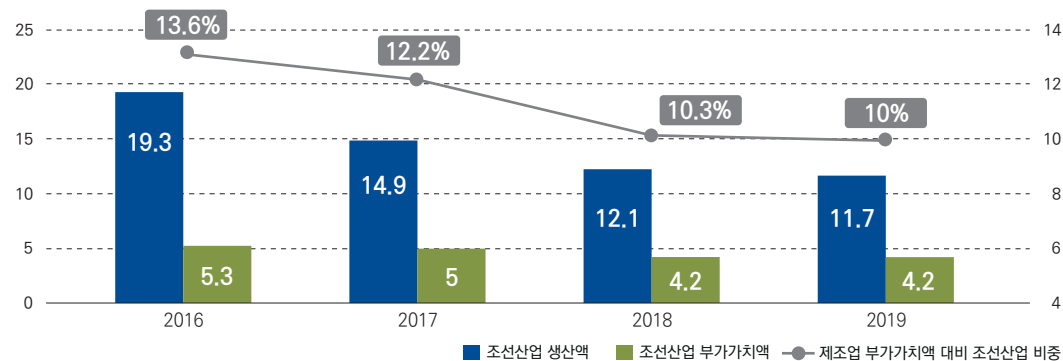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



● 석유화학 산업



● 조선 산업



자료 : 통계청, 2016~2020년

- (2040 전망 키워드) 경제산업 분야에 적합한 2040 전망 키워드는 스마트, 에너지, 바이오 등임
- (대응 방향) 산업환경이 스마트와 탄소중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그리고 미래신산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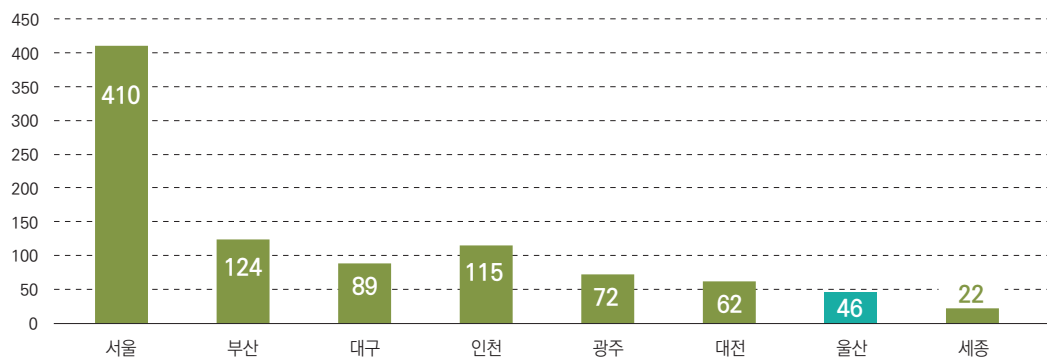
문화관광 분야

- 울산의 문화기반 시설 수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울산은 46개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편임
 - 울산의 문화기반 시설 수는 1년 전인 2019년 1월의 43개에 비하면 1년 사이에 3개가 증가했으며, 5년 전인 2015년 1월의 40개에 비하면 6개가 늘어났음
 - 2021년은 시립미술관의 개관 등으로 문화시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8. 문화관광 주요 현황(1/2)

● 문화기반시설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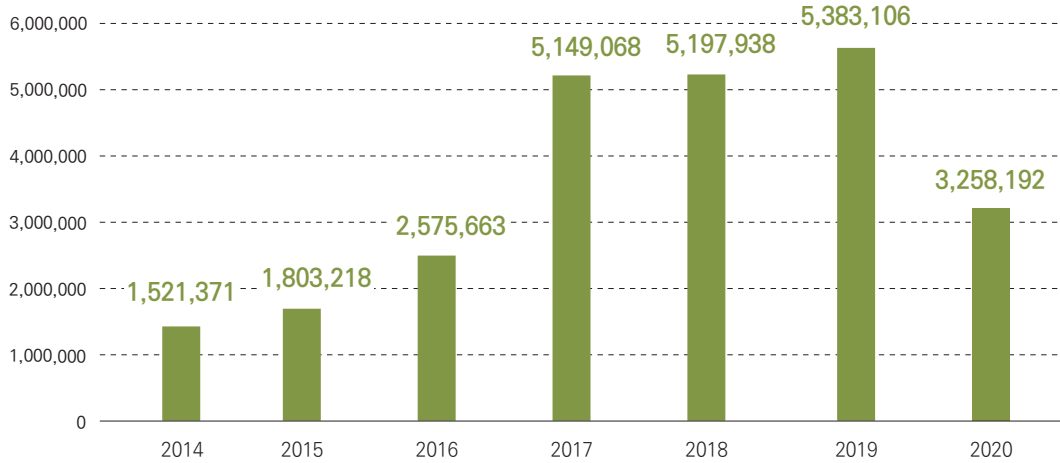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분석", 2020년 1월

- 울산시 내국인 관광객 수(주요 관광지점)는 2014년 1,521,371명에서 2016년 2,575,663명으로 69.3%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99.9% 증가한 5,149,068명이 관광객 수로 집계되었음
- 이는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 홍보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2018년 5,197,938명, 2019년 5,383,10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3,258,192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되었으나, 위드코로나 전환 등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 및 산업이 요구됨

그림 29. 문화관광 주요 현황(2/2)

● 울산시 내국인 관광객 수

(단위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021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시도별 여행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평가에 따르면, 울산시는 17개 시도 중 평균 8위 평가됨
-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을 살펴보면, 안내시설과 친절성, 혼잡도에 대하여 각 6위 또는 5위를 평가 받음
- 그러나,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에서는 12위 또는 13위 평가이며, 재방문 의향은 10위, 타인추천 의향의 여부는 11위로 나타남

표 6. 시도별 여행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 평가

순위	쇼핑 만족도	안내시설 만족도	편의시설 만족도	친절성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물가 만족도	혼잡도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 추천의향
1위	광주	광주	전남	광주	광주	전남	전남	광주	제주
2위	경남	전북	경남	전남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광주
3위	전남	전남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전북
4위	부산	경남	광주	경남	전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5위	전북	제주	대전	울산	서울	경남	경북	강원	부산
6위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세종	대전	울산	부산	강원
7위	제주	세종	강원	강원	전남	충북	대전	경남	경남
8위	울산	강원	세종	세종	제주	울산	충북	충남	경북
9위	세종	부산	부산	충북	대구	충남	충남	경북	충남
10위	경북	경북	서울	부산	충남	경기	제주	울산	충북
11위	강원	충북	충북	경기	경북	경북	강원	충북	울산
12위	대전	충남	울산	충남	충북	서울	세종	서울	서울
13위	경기	대전	대구	대전	울산	대구	경기	경기	경기
14위	대구	경기	충남	서울	부산	강원	대구	인천	인천
15위	충남	서울	경기	경북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16위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제주	부산	대전	대구
17위	충북	대구	경북	대구	대전	인천	서울	세종	세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국민여행조사 분석편", 제작성, 2021년

- (2040 전망 키워드) 2040년 문화관광 분야에 적합한 전망 키워드는 문화다양성, 디지털 문화 관광, 생활 속 관광 힐링/안심관광 등임
- (대응 방향) 문화다양성 증진, 디지털 문화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백신 관광 구축을 통해 문화 다양성이 풍부한 그린 뉴딜 울산 관광 환경 조성

도시환경 분야

- 울산의 평균기온은 1946년 13.8℃에서 2020년 14.6℃로 기상관측 이래 7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또한, 연평균 열대야 일수도 1946년 4일에서 2020년 14일로 10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기온을 전망한 결과, 울산은 RCP 2.6 시나리오에서 현재 (13.4℃) 대비 21세기 후반기(1.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3.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0. 도시환경 주요 현황



- (2040 전망 키워드) 도시환경 분야에 적합한 2040 전망 키워드는 기후-대기 위기,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임
- (대응 방향)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대기 위기대응 기반 강화, 도심 생태공간 확대와 공공주도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강한 울산 건설

도시안전 분야

-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고밀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불확실성과 규모 증가, 신종재난 우려 증가
 - 2016년 태풍 '차바'(시간당 124mm 폭우)로 인해 태화시장, 우정시장 등 울산시 곳곳 침수
 -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동남권 집중, 울산시 관통하는 단층대로 인해 시민 불안 가중
 -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등 기존 재난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대형재난 발생빈도 증가
- 울산시 관내 및 주변지역 위험요인 다수 상존
 - 울산시 관내에 전국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존재, 반경 2km 이내 울산시민 약 2천명 거주, 반경 5km 이내 약 150천명 거주
 - 월성, 고리원전 비상 계획 구역 내 울산시민 약 925천명 거주

그림 31. 도시안전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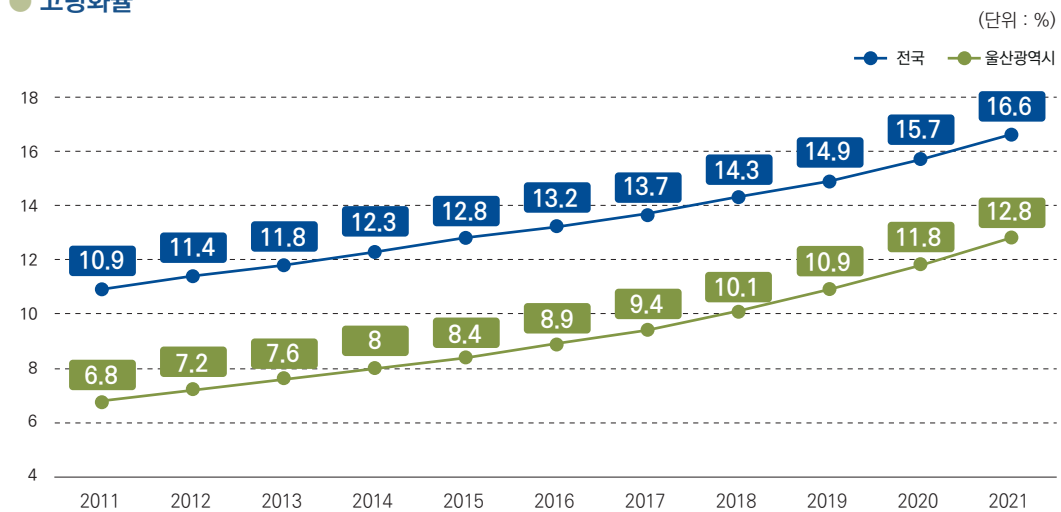
- (2040 전망 키워드) 도시안전 분야에 적합한 2040 전망 키워드는 기후변화, 불확실성, 회복력 등임
- (대응 방향)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하는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상징후 관리, 재난 회복력 증대를 통해 재난에 강한 도시 건설

사회복지 분야

- 울산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으로 늘어 2020년 14만 명을 넘었고 고령화율도 2021년 기준 전체인구의 12.8%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단계임
- 울산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1.4%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1.0%대로 감소함
- 울산의 주요 복지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2019년 기준 총 1만 9천여 가구에 약 2만 6천여 명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 발굴노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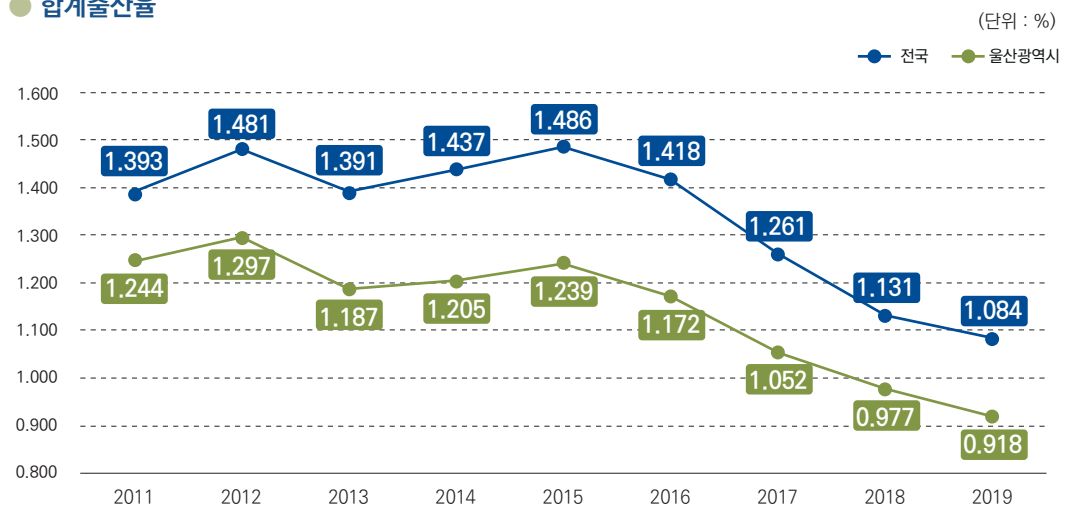
그림 32. 사회복지 주요 현황(1/2)

고령화율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2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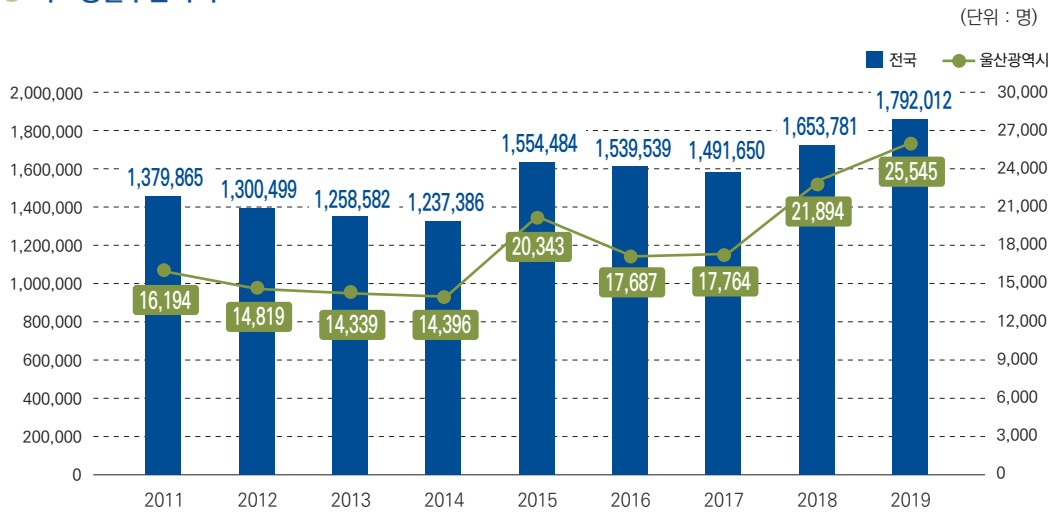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19년

그림 32. 사회복지 주요 현황(1/2) (계속)

● 기초생활수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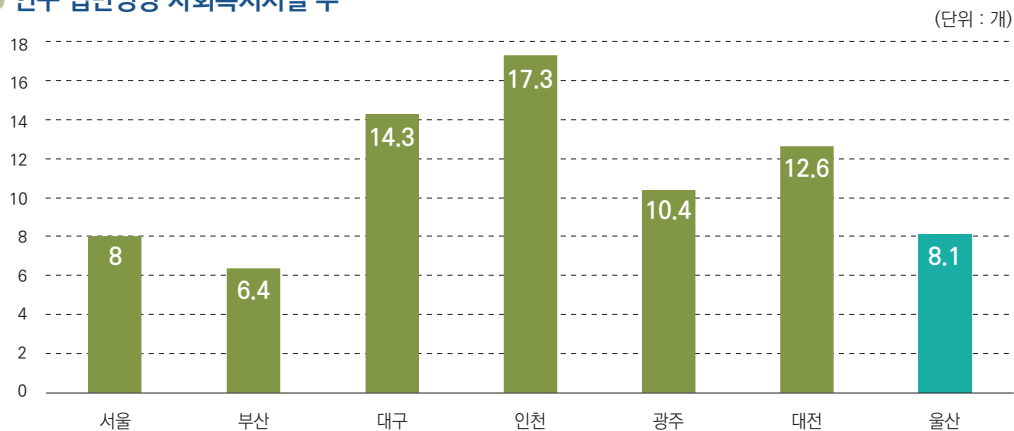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19년

- 울산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8.1개소로 주요 특·광역시와 비교해 광주에 이어 5번째로 나타났고 노인천명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4개소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의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 수와 인구대비 비율은 약 3만8천여명에 7.2%로 나타났으며 이는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울산의 일반회계 중 복지비 지출은 젊은 도시의 명성에 맞게 20~30% 수준을 오르내리다가 2019년 기준 37.9%로 상승하였고 인구 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추세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3. 사회복지 주요 현황(2/2)

●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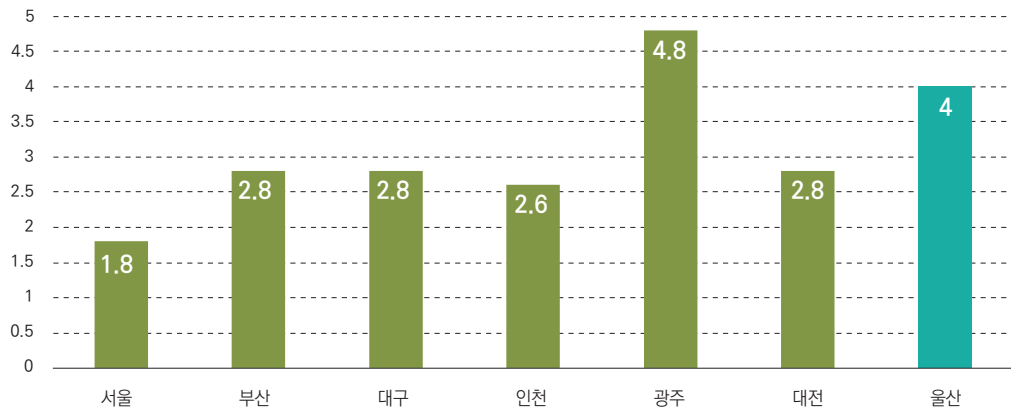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18년

그림 33. 사회복지 주요 현황(2/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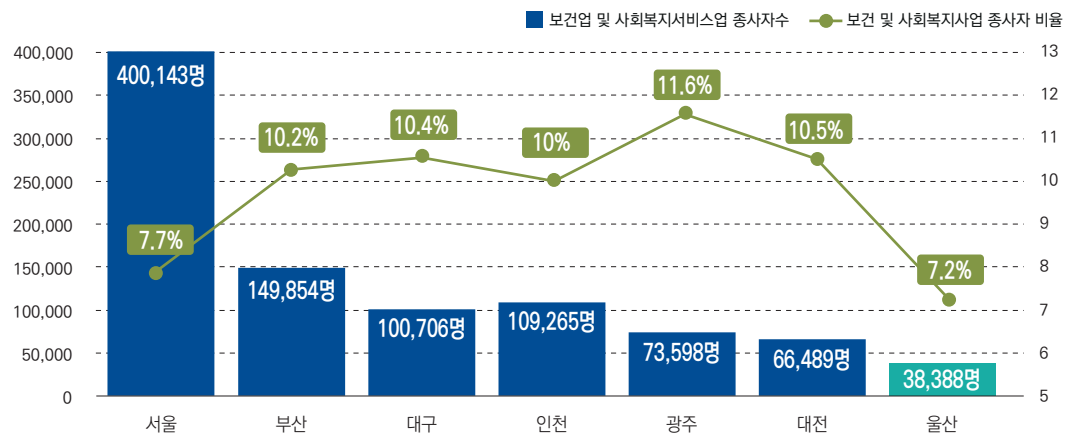
● 노인천명당 여가복지시설 수

(단위 : 개)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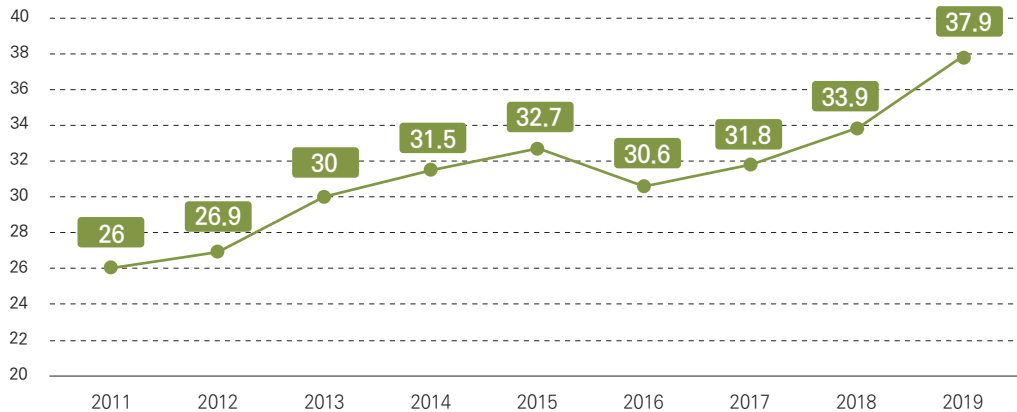
●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19년

● 일반회계 중 복지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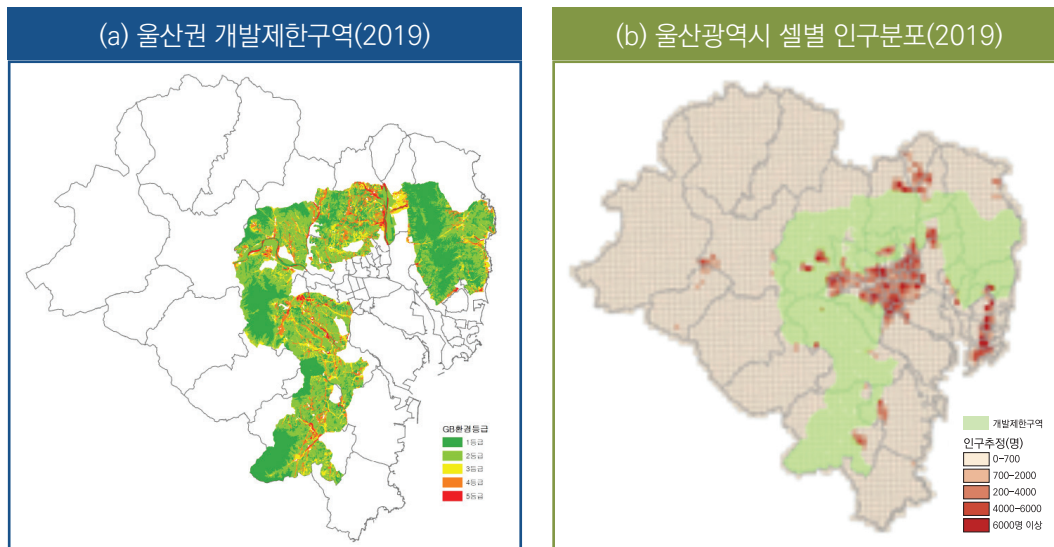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2019년

- (2040 전망 키워드) 사회복지 분야에 적합한 2040 전망 키워드는 비대칭적 인구구조, 도시화/삶의 질, 빈곤 양극화/돌봄 등임
- (대응 방향) 보편적 복지와 스마트한 복지환경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공적돌봄 환경 구축, 스마트 복지도시 구축

도시공간 분야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의 가용지 부족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로 연결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의 인구를 셀(격자)별로 보면, 울산광역시의 대부분 인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측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인구들이 서측의 서부권 그리고 북측의 농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약 117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약 113만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35 울산 도시기본계획은 2도심 4부도심 5지역중심의 인구 130만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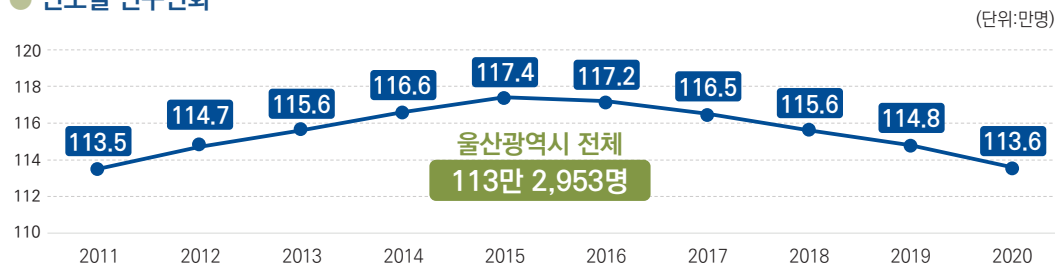
그림 34. 도시공간 주요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 내부 데이터, 저자 재작성, 2019년

자료 : 통계청, 저자 재작성, 2019년

연도별 인구변화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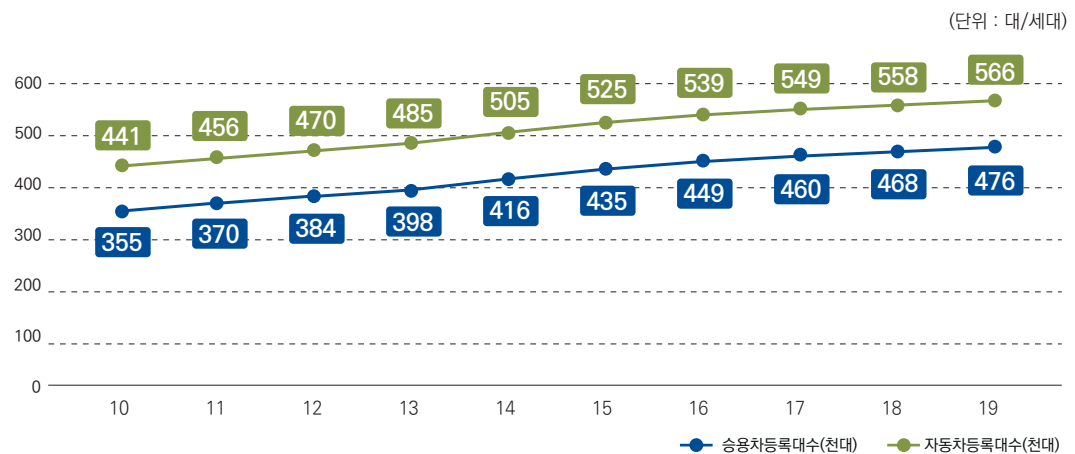
- (2040 전망 키워드) 도시공간 분야에 적합한 2040 전망 키워드는 도시의 광역화 및 대도시권화 (메가시티), 중심성(다양성)과 광역성(접근성)이 결합된 광역거점 위주의 도시공간 형성 등임
- (대응 방향) 메가시티 시대, 대중교통(철도망)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울산과 주변 지역간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신성장거점 필요

도시교통 분야

- 울산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승용차 위주로 통행이 이루어져 도시 간선도로 상의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로 승용차 이용자의 친환경 대용량의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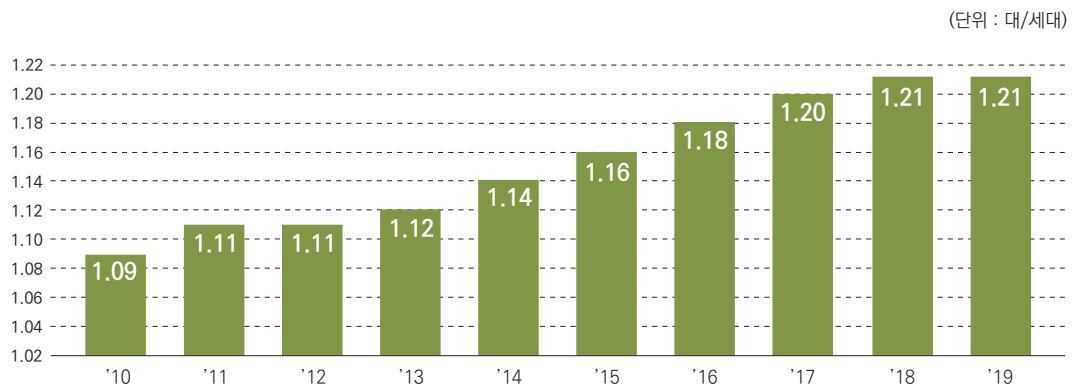
그림 35. 도시교통 주요 현황

● 자동차등록대수(연평균 증가율 2.81%)



자료 : 울산광역시 통계연보, 201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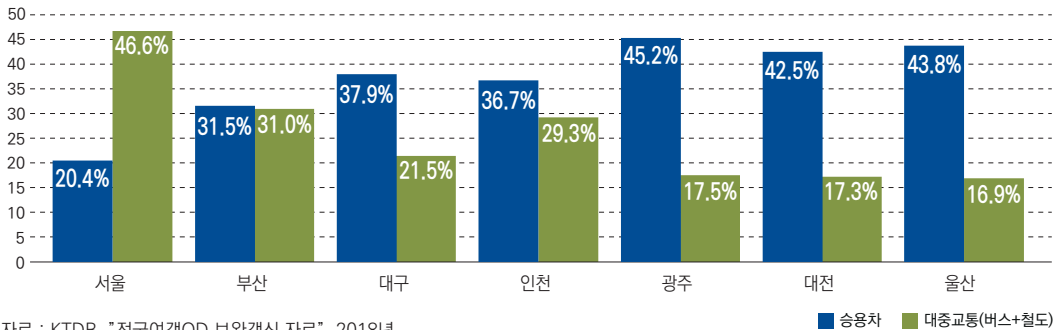
● 세대당 차량보유대수(1.21대, '19년 기준)



자료 : 울산광역시 통계연보, 201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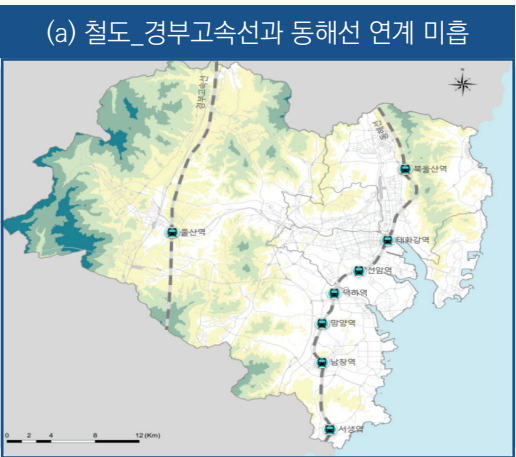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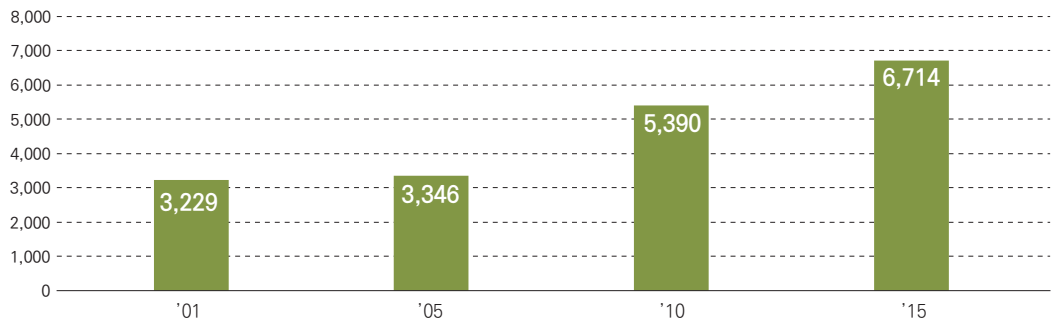
그림 35. 도시교통 주요 현황 (계속)

● 수단분담율(승용차 43.8%, 대중교통 16.9%)



● 교통혼잡비용(7대 대도시중 증가율 최고)

(단위 : 억원)



자료 : KTDB, "전국여객OD 보완갱신자료", 2018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4.04.22

- 울산의 철도망은 남북축(경부고속선, 동해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동서축 연계가 미흡한 상태로 지역 내 광역신성장 거점 연계와 함께 동남권 주요 도시를 1시간대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 필요
- 울산의 도로망 체계는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 및 순환축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 내 주요 생활권 간 연계가 미흡하므로 기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미 연계 도로를 연결해 2도심, 4부도심, 5지역 중심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도로망 체계 구축 필요
- (2040 전망 키워드) 도시교통 분야에 적합한 2040 전망 키워드는 메가시티, 과학기술, 스마트, 기후위기 등임
- (대응 방향)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교통 시대 도래에 맞추어 도시광역화를 고려한 교통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3.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 전통산업 경쟁력 우수
-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우수
-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 게놈 등 신산업 육성 기틀 마련
- 울산 서부권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우수
-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 및 체계 확보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풍부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도시로 부상
- 울산관광재단 설립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관광 인프라 우수
- 생활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음

약점(Weakness)

- ICT,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기업과 관련 분야 고급 인재 부족
-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공간구조가 이원화되고 생활권 간 연계 체계 미흡
-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체계 미흡
-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도시운영 체계
- 복지 및 의료 인프라 부족과 특정 지역 편중
- 대학 부족으로 인구 유출 및 부족한 청년 문화 인프라
- 문화예술 인프라 및 인력 부족
- 다양한 관광체험시설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 한계
-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함

기회(Opportunity)

- 기후변화 위기로 세계 각국이 탄소제로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
- 자동차, 조선산업의 제품과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서부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는 영남권 초광역거점도시 조성
- 부울경, 영남권, 해오름동맹 등 도시 광역화 추진
- 방재 도시계획 체계 및 방재 및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에 대한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울산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과 게놈 데이터 산업 활성화
- 관광객 수요에 따른 새로운 문화산업의 발전 용이
- 태화강 정원 제2국가정원 승격,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 메타버스 기술 부상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한 관광콘텐츠 확대
- 스포츠가 고부가가치산업이 되고 있음

약점(Weakness)

-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에 따른 핵심 기술 격차 심화
- 산업부분의 탈탄소화 정책 가속화
- 데이터, 첨단기술 중심으로 일자리 지형 변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 민간부문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준비 부족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염, 가뭄 등 발생빈도 증가
-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사회공헌 축소
-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고급기술인력 유출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약화
- 편리한 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른 체류형 관광객 감소 우려
- 스포츠산업 기반이 약함

4. 주요 대응 전략

S-O전략

- 전통 주력산업의 제품 및 공정의 디지털 혁신
-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 게놈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활용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신산업 육성 기틀 마련
- 서부권 중심 영남권 초광역거점 도시 조성
-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탄소제로사회 조성
- 디지털 기술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한 스마트 방재도시 건설
- 디지털 기술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
- 미래형 관광콘텐츠 생산을 위해 지역 관광 인프라 적극 활용
-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문화예술산업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

S-T전략

- 디지털 기술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한 산업 핵심 기술 확보
-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활용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데이터 관련 일자리 확충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 디지털 기술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한 자연재해 피해 대응
-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세수 확보로 사회공헌 사업 추진
- 디지털 기술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한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 에너지신산업 기반, 디지털 기술 인프라, 관광 인프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
-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산업 기반 강화

W-O전략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초광역거점도시 조성
- 트램 및 공유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제로도시 건설
- 복지 및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 유출 대응
- 제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술대학 설립으로 청년 인구 유입 확대

W-T전략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 개선
- 트램 및 공유교통망 확충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으로 울산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 산업과 도시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 복지 및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문화예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다양한 관광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확대 방안 마련
- 생활 스포츠 종목 확대를 통한 생활 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

5. 주요 대응 전략에 따른 목표 도출

- 주요 도시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첨단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신산업도시’,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의문화도시’, 4대 RE100과 함께하는 ‘그린안전도시’,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복지도시’, 중심성(다양성)과 광역성을 갖춘 ‘초광역거점도시’임

그림 36. 주요 대응 전략에 따른 목표 도출 과정



6. 비전 / 목표 / 전략

비전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울산

- 목표**
- 첨단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신산업도시
 -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의문화도시
 - 4대 RE100과 함께하는 그린안전도시
 -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복지도시
 - 중심성(다양성)과 광역성을 갖춘 초광역거점도시

그림 37. 비전 / 목표 / 전략



7. 도시목표 설명과 계획 수립 방향

울산 2040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신산업도시’, ‘창의문화도시’, ‘그린안전도시’, ‘포용복지도시’, ‘초광역거점도시’ 등 5개 도시목표를 선정함

가. 도시목표 설명

미래신산업도시

- ‘미래신산업도시’는 디지털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력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탄소중립 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를 의미

창의문화도시

- ‘창의문화도시’는 창의적인 인재와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시를 의미

그린안전도시

- ‘그린안전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 수준의 회복·탄성력을 갖춘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를 의미

포용복지도시

- ‘포용복지도시’는 사회적 배제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울산형 스마트 복지도시를 의미

초광역거점도시

- ‘초광역거점도시’는 울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권을 확대하는 도시를 의미

나. 도시목표별 계획 수립 방향

미래신산업도시

- IT기반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의 스마트대전환을 통한 제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 원자력산업 육성을 통해 울산 그린 에너지 신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함
- 게놈바이오, 해저도시 등 지식서비스 중심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신산업도시 울산의 만드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창의문화도시

- 상상과 호기심 가득한 미래를 꿈꾸는 '창의문화도시'를 위하여 글로벌 뮤직허브 구축, 글로벌 예술자유지역 조성 등 포용력 있는 국제문화도시를 구축
- 또한 산업현장 연계 문화예술을 강화하고, 문화분권 및 재정 확충 강화와 문화예술공유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으로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과 확산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를 구축
- 디지털 뉴딜시대에 대비하여 창의문화도시는 디지털 융합콘텐츠 생산,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유치, 메타버스 관광시스템 구축, 스마트관광 도시 인증 등 지속가능한 디지털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었음
- 울산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과 다시 오고 싶은 울산관광을 위하여 울산 6대 관광거점 기반을 통한 울산어반플레이를 조성하고, 울산로컬관광 혁신프로젝트 추진과 뉴노멀 MICE산업 도시 경쟁력 고도화 방안 등으로 더 나은 울산관광을 위한 미래성장 전략 방안을 추진

그린안전도시

- '그린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4대(3+1) RE100 사업을 추진
-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을 위해 3대 RE100을 추진
 - － 첫째,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시민, 기업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 사업을 추진
 - － 둘째, 자원순환을 통한 저탄소 사회 건설을 위해 재활용 100(Recycle 100) 사업을 추진
 - － 셋째,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및 관리를 위해 녹색복원 100(Restoration 100) 사업을 추진
- 기후위기와 재난에 강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회복력 100(Resilience 100) 사업을 추진

포용복지도시

- 울산형 복지지원제도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강화
-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질적 성장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증진
- 아울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

초광역거점도시

- 서부권은 영남권 산업혁신 거점으로, 북부권은 울산·경주·포항 등이 함께하는 해오름권 광역자족 거점으로, 남부권은 산업·관광거점으로 조성해 '광역 신성장 거점'을 육성함
- 도시공간 측면에서 도심 재창조 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농촌거점 활성화 사업 등 기존 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 교통 측면에서는 트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위그선 등 미래교통 수단 활용을 강화. 아울러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2도심, 4부도심, 5지역 중심을 도로망으로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으로의 이동선 개선을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둠

